

#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5. 1. 2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16. 김영미 의원 외 12인
- 나. 회부일자 : 2015. 1.16.
-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15. 1.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미 의원

### 가. 제안이유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공원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원의 단절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1999년부터 시작된 전철화 사업에 따라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부터 가좌역까지 6.3km 구간에 대하여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16년 6월 최종 완공할 계획임.

- 2)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도로 등으로 인해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있음.
- 4)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함.

###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안건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시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원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원의 단절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결의한 사항임.
-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사업은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철도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일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임.

- 공원화 사업이 2016년 6월 최종 완공되면 공원은 각종 나무들로 심어져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을 설치해 인근 직장인과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매김 되고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도로 등으로 인해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중간에서 허리가 잘린 미완성의 공원이 아니라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구간까지 계속 연결하여 완성된 경의선 지상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의선 숲길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